

중국의 신흥시장 진출과 한국의 대응방안: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최필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중국팀 부연구위원
pschoi@kiep.go.kr

박영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팀 연구위원
parkyh@kiep.go.kr

권기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중남미팀 부연구위원
kskwon@kiep.go.kr

정재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동남아팀 전문연구원
jwcheong@kiep.go.kr

이효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중국팀 연구원
hyojinlee@kiep.go.kr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신흥국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한국에 있어 신흥국의 중요성도 나날이 커지고 있음.
 - 본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ASEAN, 중남미, 아프리카가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9.2%에서 2012년 14.1%로 증가함.
 - Global Insight는 2020년에 이들의 비중이 15%까지 증가할 것으로 봄.
- 그러나 신흥국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답보상태이며 그 자리를 중국이 메꾸고 있음.
 - [표 1]에 따르면 중국은 2003년 4.44%에서 2012년 9.79%로 점유율이 5.35%p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은 계속 4%~5%대에 머물며 매우 완만한 증가세만을 보이고 있음.
 - 2003년만 해도 한국과 중국은 각각 4.57%와 4.44%로 비슷한 수준의 점유율을 보였으나 2004년부터 중국에게 추월당한 이래, 한국은 앞서나가는 중국을 바라보고 있음.
 - 중국은 상품 교역에서 최저가부터 중고위 품질까지 폭넓은 스펙트럼의 제품군을 갖추고 있음.
 - 해외건설 수주 시장에서도 중국은 이미 2009년에 해외건설 매출실적 1위에 오름.
 - 자원 개발 분야에서도 중국은 자금력을 바탕으로 신흥시장의 자원 채굴을 장악하고 있음.

[표 1] 신흥국 수입시장에서의 한국과 중국의 점유율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한국	4.57%	4.94%	5.02%	5.10%	4.94%	4.60%	5.02%	5.25%	5.06%	4.85%
중국	4.44%	4.98%	5.65%	6.52%	7.42%	7.86%	8.69%	9.08%	9.25%	9.79%

주: 'Emerging and Developing Countries' 항목에서 한국과 중국의 데이터를 추출하여 정리함.
자료: IMF DOT.

- 본 연구는 중국의 신흥시장 진출 현황을 교역과 투자, 건설수주, 자원개발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우리나라 기업과의 경쟁현황을 파악하여 가능한 대응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특히 본 연구는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함.

2. 조사 및 분석 결과

1) RCA-MS 매트릭스 분석

● 신흥국에서의 현시비교우위(RCA)와 시장점유율(MS) 매트릭스를 작성하여 우리나라의 수출 전략을 도출함.

- 지역별 매트릭스는 참고자료로 첨부했으며, 이에 따른 자세한 전략 기술은 다음 장에서 이어짐.

[표 2] RCA-MS 매트릭스의 전략적 포지션

	구분	전략	품목의 특징
A	RCA高, MS高	수성(守城)	0~8개까지 국가간 편차가 큼
B	RCA高, MS低	집중공략	품목 수가 두 번째로 많으며, 동일한 품목이 A에 등장하기도 함
C	RCA低, MS高	시장의 특수성 파악	특수한 경우이며, 품목 수가 거의 없음
D	RCA低, MS低	제품 경쟁력 제고 노력	가장 많은 품목 수

자료: 저자 작성.

2) 해외건설수주 비교우위 지역과 공중

① 지역 분석

● ENR이 발표하는 <TOP 225 International Contractors>에 나타난 각 지역의 한국 해외건설 매출액을 중국의 값으로 나누어 각 지역별 시사점을 도출함.

- 한국의 해외건설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한 지역이 중동이며, 중동은 한국이 중국에 비해 절대적 우위를 보이는 유일한 지역임.
- 규모가 가장 크고 가장 빨리 성장하는 지역은 아시아이며, 여기서 한국은 2011년까지 대략 중국의 20% 수준의 매출액을 기록했으나 2012년에는 40.8%를 기록하여 큰 약진을 보임.
- 아프리카에서 한국은 중국의 10% 수준 밖에 해외건설 매출을 올리지 못하고 있음.
- 중남미에서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는 중국의 10% 수준에 머물고 있던 한국의 매출액이 2008년 40%를 넘어선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3] 신흥국 건설시장 韓中 공종별 수주 실적 비교

	시장규모 (‘12, 억 달러)	시장성장률 (최근 3년)	한국/중국 (최근 3년)	주요 공종(‘12, 억 달러)	
				중국	한국
아시아	1,387	24.9%	27.6%	석유화공(120) 전력설비(116) 건축(110) 교통인프라(108) 전자통신(66)	전력설비(160) 건축(130) 석유화공(115) 산업설비(79) 교통인프라(73)
중남미	500	23.0%	25.8%	전력설비(38) 전자통신(27) 교통인프라(23) 석유화공(22) 건축(17)	전력설비(24) 석유화공(22) 산업설비(14) 건축(0.13) 교통인프라(0.015)
아프리카	569	0.1%	9.8%	교통인프라(216) 건축(184) 상하수도(50) 전력설비(47) 전자통신(38)	산업설비(9.4) 전력설비(2.8) 교통인프라(2.1) 건축(1.7)
자료의 소스 및 성격	ENR Top 250 International Contractors (2013. 8) 매출액 기준			中國對外承包工程商會	해외건설수주통계
	수주액 기준, 아시아에 중등 포함				

② 공종 분석

● 한국의 해외건설수주통계와 중국 <대외도급공정발전보고>를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 한국이 중국에 비해 눈에 띄는 비교우위를 보이는 분야는 ‘석유화학’이나 2012년에는 중국이 한국을 앞섬.
- 화력·수력 발전설비 등을 포함하는 전력설비에서는 한국이 중국 대비 60~80% 수준의 수주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제조업 공장 건설을 위주로 하는 산업설비 부문에서 한국은 중국의 절반 수준의 수주 실적을 보이고 있음.
- 중국이 한국에 비해 훨씬 많은 수주를 하는 분야는 ‘건축’과 ‘교통인프라’, ‘상하수도’임.
- 중국에 비해 한국이 거의 수주하지 못하는 분야는 ‘전자통신’과 ‘광산개발’임.
- ‘환경보호’와 같은 분야는 두 나라 모두 수주액도 크지 않고 한·중 간의 격차도 기복이 크나 중국의 수주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3) 자원개발 현황

- 2002년 CNOOC의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유전 인수를 시작으로 중국 석유기업들의 동남아 투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

- 미얀마를 랜드브리지로 삼아 인도양으로 진출하는 새로운 에너지 공급 루트로 활용하고자 함.
 - CLMV(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에서는 광물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이 활발함.
- 중국의 對중남미 석유수입 의존도는 2005년 3.2%에서 2012년 9.2%로 꾸준히 증가함.
 - 이를 위해 이른바 차관 제공을 통한 석유확보(Loan for Oil)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형 생산 광구 인수를 통한 진출을 확대하고 있음.
 - 이 밖에 하청계약을 통하여 다운스트림 부문으로의 진출을 확대하고 스페인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많이 맺고 있음.
 - 2003~10년 동안 이루어진 중국의 전체 해외 에너지·자원 투자(M&A 제외) 가운데 아프리카의 비중이 31%로 지역별로 가장 큼.
 - 중국은 지분인수를 통해 에너지와 광물자원에 대한 대형 투자에 나서고 있으며, 특히 앙골라나 수단과 같은 정치적으로 불인정한 신흥 자원부국을 집중 공략하고 있음.

4) 동남아

- 중국은 전략적으로 동남아와의 협력을 낙후된 서남부지역 개발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음.
 - 미얀마, 베트남, 라오스 등과의 국경무역 활성화나 위안화의 국제화는 이런 맥락에서 이해됨.
 - 특히 ‘One Axis & Two Wings’ 전략과 ‘Two Corridors & One Circle’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대외원조와 비즈니스를 연계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으며 특히 CLMV 지역에 중점을 두고 있음.
- 동남아 내 화교 및 화교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전략을 펴고 있음.
 - 특히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화교들이 중국 동남아 네트워크의 핵심을 이루고 있음.
- 중국은 외교·안보적인 측면에서 중국위협론의 해소와 동아시아 내에서 미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견제하고 있으며 특히 CAFTA의 심화 및 확대 제의, 아세안 주도의 RCEP에 대한 지원, 한·중 및 한·중·일 FTA 추진 등이 그 일환으로 읽힘.
 - 이밖에 GMS 프로그램, CAEXPO, 범북부만경제협력포럼 등 다양한 다자간 협력 기제를 활용하고 있음.
- 중간재와 자본재 중심의 교역을 통해 산업내무역, 즉 생산 네트워크 형성이 이뤄지고 있음.

5) 중남미

- 최근 들어 중국기업의 중남미 투자는 자원개발보다는 시장 확보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최근 5년간(2007~12년) 중국의 對브라질 투자의 63%가 브라질 및 인근 중남미 시장 진출을 겨냥한 투자였음.
 - 후발주자로 브라질 자동차 시장에 뛰어든 중국 업체들은 낮은 가격과 파격적인 할부조건을 무기로 소형 자동차 시장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으며 대형 물류기지 및 쇼핑센터 건설을 통한 진출도 눈에 띄는 특징임.
- 건설분야에서는 1) 차관제공을 대가로 공사를 수주하고, 2) 내륙의 일차산품을 중국으로 수송할 항만 개발에 대한 진출을 확대하고 있으며, 3) 수력발전 등 전력설비 수주에 열을 올리고 있음.
 - 2005~12년 기간 분야별로 중국은 인프라 분야에 가장 많은 차관을 제공함.
 - 차관 제공을 통한 중국의 인프라 분야 진출은 경제적인 실리 외에 미수교국과의 연계라는 외교적인 목적을 겨냥하고 있음.

6) 아프리카

- 중국은 고위층의 집단적인 방문외교, UN 회의를 방불케 하는 협력포럼, 대대적인 자금공세 등 정부의 막후 지원에 힘입어 아프리카에 접근하고 있음.
 - 유럽과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중국의 ‘신식민지론’을 거론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임.
- 그러나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거두고 있는 성과들은 반세기에 걸쳐 축적되어 온 협력의 산물이며 오늘날 중국의 인프라 건설은 큰 환영을 받고 있음.
- 중국의 아프리카 투자는 자원분야에 그치지 않고 제조업 부문에 폭넓게 걸쳐 있으며, 학교와 병원 등 민생 프로젝트에도 주력하고 있음.
- 최근 자원을 담보로 하는 차관제공 방식이 한계에 부딪치고 있으며, 정치적 리스크로 발목을 잡히거나 인권이나 환경 문제로 어려움을 겪기도 함.
 - 콩고와 앙골라에서 외부의 압력과 내적 정치 지형의 변화로 중국의 자원확보 전략이 차질을 겪고 있음.
 - 중국인이 운영하는 잠비아 광산에서는 안전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으며, 가봉에서는 국립공원 내 석유탐사 사업으로 환경단체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음.

3. 정책 제언 및 시사점

1) RCA-MS 매트릭스 분석

- RCA가 중국보다 낮으면서 중국보다 높은 시장점유율을 가지는 품목은 거의 없었으며, 이는 본질적인 경쟁력 없이 현지의 특수한 상황에서 수요가 발생하는 품목이 별로 없다는 것을 의미함.
 - 즉 D 품목을 C 품목으로 격상시키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함.
 - 가장 많은 품목을 차지하고 있는 D는 전체적인 수출경쟁력 상승을 통해 B로 이동할 수는 있어도, 어떤 현지 상황의 변화로 C로 이동할 가능성은 크지 않음.
- 노력 대비 효과가 가장 큰 전략은 국가별 B 품목군 중 같은 지역 내 다른 나라에서 A 품목군에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시장개척 활동을 하는 것임.
 - 가령 미얀마와 캄보디아에는 우리나라가 시장점유율 우위에 있는 품목이 하나도 없는데 인근 베트남과 라오스, 태국에서 어떤 품목들이 중국보다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면 미얀마와 캄보디아에서도 그것이 성공할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할 수 있음.
 - 중남미에서는 브라질과 멕시코 등 좀 더 성숙한 시장에서 많이 팔리는 품목을 베네수엘라에서도 팔리게 한다는 전략을 구사한다면 보다 안정적인 성공률을 확보할 수 있음.
 - 아프리카에서는 남아공과 나이지리아, 코트디부아르가 그러한 벤치마크 시장이 될 수 있음.
-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전략은 지역별로 성숙한 벤치마크 시장에서 B 품목을 A로 격상시키는 노력을 하는 것임.
 - 그러한 성숙한 시장을 지역별로 3개씩 꼽자면 동남아에서는 베트남·인도네시아·태국, 중남미에서는 브라질·멕시코·칠레, 아프리카에서는 남아공·나이지리아·가나임.
 - 이 국가들에서 유망 품목으로 시장개척 활동을 벌인 노하우는 쉽게 지역 내 다른 국가들에 전파될 수 있음.
 - 다른 국가들도 벤치마크 국가들과 비슷한 성장 노선을 따르고 비슷한 소비 성향을 가지게 될 개연성이 있기 때문.

2) 해외건설 수주

- 지역적으로 각국의 정치적 전략과 입장으로 인해 건설수주의 차이점이 확실히 드러나므로 우리나라 정부는 좀 더 유연한 정치적·외교적 입장을 취해야 함.
 - 한국의 수주 실적이 전혀 없는 이란에서 중국은 고속철도 건설과 유전인프라 건설 등의 대규모

수주를 이뤄냈으며, 중남미에서는 베네수엘라에서, 아프리카에서는 리비아를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에서 중국의 정치적 스탠스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

- 중국은 서구적 가치관과 제 1세계와의 친소(親疎)관계로부터 자유로움.

● **건설 공중 면에서, 한국은 산업설비, 석유화공, 화력발전에서 경쟁력을 다져야 함.**

- 최근 중국은 석유화공 플랜트를 다수 건설하면서 이 분야에서의 한국의 우위를 위협하고 있음.
- 산업설비와 화력발전도 한국과 중국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분야임.
- 전반적으로 한국은 고급 엔지니어링의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중국의 비교우위가 확실한 공중은 수력발전, 교통인프라 등이며 전자통신도 중국의 독무대임.**

- 설비의 원가 자체가 비교할 수 없으므로 우리나라가 이러한 분야에 몰두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임.

● **건축 부문에서는 양적으로는 중국이 우위에 있기는 하나, 한국의 최근 퍼포먼스도 나쁘다고 할 수만은 없음.**

- 이는 이라크에서의 신도시 건설과 같이 한국이 나름대로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부문을 개발했기 때문.
- 단순 토목건축이 아닌 고부가가치 건축 분야에서 한국은 두바이의 버즈 칼리파, 타이페이 101과 같은 좋은 선례를 가지고 있음.

3) 동남아

● **중국은 정부나 국가기관이 무역, 투자, 개발원조에 걸쳐 치밀한 협조를 하고 있으므로 한국도 기업과 정부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절실히 요구됨.**

● **중국은 다양한 협력프로그램을 잘 활용하고 있으므로 한국의 기업이나 정부도 이러한 다국적 협력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거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 인도차이나 지역의 종합개발사업인 GMS Program, 범북부만개발계획, CAEXPO 등은 중국과 아세안 간의 경제협력과 외교협력을 확대하는 중요한 장이 되고 있음.

● **한국 역시 아세안에 넓게 분포되어 있고 왕성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화교나 화교기업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화교나 화교기업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하거나 화교기업과의 합작을 통해 아세안과 중국시장에 진출할 수도 있음.

- 보다 공격적이고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자원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중국·미얀마 천연가스 및 원유 파이프라인의 경우 중장기적인 에너지자원 수송 전략에서 비롯되었고, 현재보다는 미래 수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마지막으로 경제개발에 필수적인 에너지 자원이나 전략광물자원, 더 나아가 첨단전자제품에 사용되는 희토류 등을 확보하거나 개발하는 과정에서 M&A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
 - 중국의 아세안 내 자원개발 사례는 대부분 막강한 국유기업집단과 방대한 외환보유고를 활용해 세계 유수의 자원기업을 M&A하거나 지분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직접적인 자체 개발보다 유효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음.

4) 중남미

- 중국의 중남미 진출 쇄도가 반드시 우리에게 위협만은 아니며 중국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의 민간기업은 아직까지 해외진출 경험이 일천하고 기술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해외시장 진출 경험이 풍부하고 높은 기술력을 갖춘 한국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음.
- 중국과 공동으로 중남미 국가를 지원할 수 있는 정부간 협력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후발주자로 중남미 경제사회개발 지원 기구인 미주개발은행(IDB)에 가입했으며, IDB를 한·중·일 간 경쟁의 장이 아니라 중남미 지역의 경제사회개발을 지원하는 협력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중국기업들처럼 중남미 시장 진출 시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 스페인 기업과 협력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의 국영석유회사 중 하나인 Sinopec은 스페인 렉솔(Resol)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까다롭기로 소문난 브라질 석유개발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했음.
- 성장 잠재력이 높은 브라질 북동부시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중국 기업의 브라질 시장 진출에서 눈에 띄는 특징은 전통적인 투자지역인 상파울루보다 북동부지역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는 점임.
 - 특히 최근 브라질 시장에 진입하는 자동차업체들은 북동부 시장의 높은 성장 잠재력을 겨냥해 바이아, 세르지페 등 북동부지역에 속속 생산 공장을 짓고 있음.

- 차베스 대통령 사후 중남미 전역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정치경제 리스크로 인한 분쟁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먼저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투자를 집중하고, 동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직접투자보다는 간접투자를 할 필요가 있음.
 - 투자계약에 안정화 조항(stabilization clauses)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필요할 경우 투자계약에 중재조항을 포함하고, 중재 장소를 싱가포르나 런던 등 제3의 장소로 선정할 필요가 있음.

5) 아프리카

- 우리는 아프리카 진출의 후발주자로 거의 모든 면에서 열세인 관계로 중국과의 직접적인 경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차별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우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제협력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 국가 전략적 또는 범정부 차원에서 중점 국가를 선정하고, 이들 국가를 대상으로 기존의 경제협력 수단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아프리카 진출의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일본 역시 정부 차원에서 중점국가를 선정하고 이들 국가를 대상으로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
- 정부 차원의 금융지원책 마련이 필수적임.
 -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국가위험과 신용위험이 높고 사업의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독자적인 금융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함.
 - 따라서 한국수출입은행 등 공적수출신용기관(ECA)이 세계은행 등 다자개발은행(MDB)이나 유럽의 개발금융기관(Development Financing Institutions) 등과의 금융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기업 진출을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음.
 - 중국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아프리카에서 높은 입지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진출에 있어 금융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선진국(미국, 유럽) 또는 중국 기업과의 협력진출을 고려할 수 있음.
 - 우리 기업은 아프리카 진출에 관한 한 자금력은 물론 진출 경험 및 노하우, 정보력, 인적 네트워크, 협력 프로그램 등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열세에 있으므로 아프리카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 기업들과의 협력진출이 현실적인 대안임.

● 아프리카에서 제기되고 있는 중국에 대한 피로감을 인지하고 그에 대응하는 한편 우리나라도 같은 처지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중국이 아프리카 경제 전반에서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고, 그것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함께 지니기 때문에 아프리카 국가들 사이에서는 중국을 부담스러워하는 정서가 발생하고 있음.
- 2013년 3월 11일, 나이지리아 중앙은행 총재는 파이낸셜 타임즈(FT)에 전격적으로 기고문을 싣고, 중국이 다른 서방 국가와 다름 없이 아프리카에서 제 욕심만을 채우고 있다고 비난함.
- 2013년 시진핑 주석이 아프리카를 순방할 때 첫 방문지였던 탄자니아에서는 중국 측이 100억 달러 규모의 바가모요 항구(Bagamoyo Port)를 건설해주기로 한 것을 반기면서도 중국 측이 절대적인 지분을 요구하고, 해당 항구를 군용으로 활용하려는 동태가 포착되자 내심 당황해하고 있음.
- 이런 점에서 한국은 서방도 아니고 중국과도 미묘하게 다르다는 점을 아프리카에 어필하여 지나치게 부담스럽지 않은 대안적인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아프리카에 다가갈 수 있음.

6) 중국 기업과의 협력진출

● 현재 중국의 해외진출의 약 90%를 차지하는 민간기업¹⁾은 아직까지 해외진출 경험이 일천해 국제화 수준이 낮고 기술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해외사업 경험이 많고 기술력을 갖춘 외국기업들을 협력 파트너로 선호함.

- 해외사업 경험이 풍부하고 비교적 높은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며 문화적으로도 동질성이 큰 우리 기업들은 다른 어느 나라 기업보다도 중국 기업들의 적합한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음.

●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의 Wison엔지니어링(이하 위슨)과 한국의 현대건설 및 현대엔지니어링과의 합작을 통한 베네수엘라 정유공장 확장 공사 수주임.

- 위슨은 2004년 설립된 중국의 석유화학부문에서 대표적인 EPC 업체이며 2011년 매출액 기준으로 석유화학분야 중국 최대 민간 EPC업체로 2012년 12월 홍콩증시에 상장됨.
- 2012년 6월 위슨과 현대건설 및 현대엔지니어링으로 구성된 컨소시엄(Consorcio Hyundai-Wison)은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PDVSA)가 발주한 29억 9,500만 달러 규모의 Puerto La Cruz(PLC) 정유공장 확장 및 설비개선 공사를 수주함.
- 컨소시엄의 지분구조는 위슨이 30%(9억 2,780만 달러) 지분을 갖고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각각 45%(13억 4,800만 달러), 25%(7억 1,832만 달러)를 가짐.
- 위슨은 해외시장 진출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동아시아 시장에서 과거에 같이 사업을 했던 글로벌 엔지니어링 업체인 한국의 업체들과 제휴를 모색함.

1) 2011년 말 현재 기업 수 기준으로 총 해외직접투자에서 민간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9%, 공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1%였다 (ECLAC 2013, p. 9).

- 한국기업의 입장에서는 중국기업과 제휴를 통해 중국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공사의 풍부한 자금 (9억 달러)을 끌어올 수 있었음.

● 한국과 중국의 기업이 제3국에 공동 진출하기 위해서 양국 금융기관의 금융지원이 관건이자 매개체가 될 수 있음.

- ‘한중 수출입은행간 상호리스크 참여약정(RRPA²⁾)’이나 한국정책금융공사(Korea Finance Corporation)의 글로벌협력펀드(Global Cooperation Fund)가 이와 같은 금융 디자인의 사례가 될 수 있음.

- RRPA는 한국 기업이 대표로 수주받은 프로젝트에 중국 기업이 동참하는 경우 한국수출입은행이 기본적인 수출금융을 제공하고 중국수출입은행이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보증 혹은 복보증(double guarantee)를 제공하는 것임.

- 글로벌협력펀드는 한국 기업이 어떤 나라에 투자하는 경우 현지의 금융기관 및 사업 파트너가 한국정책금융공사를 대표로 하는 한국측 금융 파트너와 공동으로 펀드를 구성하여 해당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투자 대상이 ‘한국기업’은 물론 ‘한국기업이 투자하는 프로젝트’와 ‘그 프로젝트 관련 해외 파트너’도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중 기업의 제3국 공동진출에 활용될 여지가 있음.

7) 한·신흥지역 간 교류 확대를 위한 박람회(EXPO) 개최

● 신흥지역과의 경제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한국과 신흥지역 간의 대규모 경제교류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한·신흥지역(아세안, 중남미, 아프리카 등) 박람회(가칭)’를 개최를 생각해볼 수 있음.

● 동 박람회는 무역과 투자를 포함해서 신기술 전시, 각국의 주요 도시 소개 및 관광객 유치, 각종 포럼과 정책 대화, 문화 교류 등을 아우르는 종합교류회라는 점에서 경제협력에 필요한 다양한 교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 한국은 아세안뿐만 아니라 중남미와 아프리카 등 신흥지역과 수많은 시장개척단, 문화사절단, 전시회, 포럼 등을 교환하고 있으나 이러한 기회가 소규모인데다가 일회성이거나 비정기적임.

- CAEXPO와 같은 대규모 정기 박람회에 필적하기가 힘들.

- 종합적인 대규모 엑스포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종합적인 對신흥국 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음.

2) Reciprocal Risk Participation Agreement

참고자료

[표] ASEAN의 한·중 RCA-MS 매트릭스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A	8701	8703	8450	8702	8702			8702
	8702	27	8702	8703	8703			8703
	8703	40	8703	8704	27			8704
	39	60	8704	27				87
	74	72		74				
	87							
B	8418	8418	8418	8418	8418	8418	8418	8418
	8450	8450	8701	8450	8450	8450	8450	8450
	8704	8701	27	8701	8701	8701	8701	8701
	27	8702	29	29	8704	8702	8702	27
	29	8704	38	38	29	8703	8703	29
	38	29	39	39	38	8704	8704	38
	40	38	40	40	39	27	27	39
	60	39	60	60	40	29	29	40
	72	74	72	72	60	38	38	60
	88	87	74	87	72	39	39	72
	89	88	87	88	74	40	40	74
	90	89	88	89	87	60	60	88
		90	89	90	88	72	72	89
			90		89	74	74	90
					90	87	87	
						88	88	
					89	89		
					90	90		
C	8705	71	71	71	71	62	62	30
	30							71
D	8415	8415	8415	8415	8415	8415	8415	8415
	8525	8525	8525	8525	8525	8525	8525	8525
	8528	8528	8528	8528	8528	8528	8528	8528
	8517	8517	8517	8517	8517	8517	8517	8517
	25	8705	8705	8705	8705	8705	8705	8705
	31	25	25	25	25	25	25	25
	34	30	30	30	30	30	30	31
	48	31	31	31	31	31	31	34
	52	34	34	34	34	34	34	48
	54	48	48	48	48	48	48	52
	55	52	52	52	52	52	52	54
	56	54	54	54	54	54	54	55
	58	55	55	55	55	55	55	56
	59	56	56	56	56	56	56	58
	62	58	58	58	58	58	58	59
	64	59	59	59	59	59	59	62
	71	62	62	62	62	64	64	64
	73	64	64	64	64	71	71	73
	76	73	73	73	73	73	73	76
82	76	76	76	76	76	76	82	
84	82	82	82	82	82	82	84	
85	84	84	84	84	84	84	85	
94	85	85	85	85	85	85	94	
	94	94	94	94	94	94	94	

주: 각 숫자는 HS CODE를 말함.
 자료: WITS와 UN COMTRADE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중남미의 한·중 RCA-MS 매트릭스

	브라질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페루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과테말라	우루과이
A	8450	8703	8704	8703	8703	8704	8704	8703	8704	8704
	8703	8702	8703	8702	88	8703	8703	88	8703	88
	8704	8450	87	88	74	8702	8702		8702	72
	27	8418	27	87	27	88	8450		8701	
	87	89					88		8450	
	88	87					87		88	
	89	72					27		60	
		27							27	
B	8418	8704	8702	8704	8704	8701	8701	8704	8418	8703
	8701	8701	8701	8701	8702	8450	8418	8702	90	8702
	8702	90	8450	8450	8701	8418	90	8701	89	8701
	29	88	8418	8418	8450	90	89	8450	87	8450
	38	74	90	90	8418	89	74	8418	74	8418
	39	60	89	89	90	87	72	90	72	90
	40	40	88	74	89	74	60	89	40	89
	60	39	74	72	87	72	40	87	39	87
	72	38	72	60	72	60	39	74	38	74
	74	29	60	40	60	40	38	72	29	60
	90		40	39	40	39	29	60		40
			39	38	39	38		40		39
			38	29	38	29		39		38
			29	27	29	27		38		29
								29		27
							27			
C			25	8705	25		30	71	8705	
									58	
									31	
								25		
D	8705	8705	8705	8528	8705	8705	8705	8705	8528	8705
	8528	8528	8528	8525	8528	8528	8528	8528	8525	8528
	8525	8525	8525	8517	8525	8525	8525	8525	8517	8525
	8517	8517	8517	8415	8517	8517	8517	8517	8415	8517
	8415	8415	8415	94	8415	8415	8415	8415	94	8415
	94	94	94	85	94	94	94	94	85	94
	85	85	85	84	85	85	85	85	84	85
	84	84	84	82	84	84	84	84	82	84
	82	82	82	76	82	82	82	82	76	82
	76	76	76	73	76	76	76	76	73	76
	73	73	73	71	73	73	73	73	71	73
	71	71	71	64	71	71	71	71	64	71
	64	64	64	62	64	64	64	64	62	64
	62	62	62	59	62	62	62	62	59	62
	59	59	59	58	59	59	59	59	58	59
	58	58	58	56	58	58	58	58	56	58
	56	56	56	55	56	56	56	56	55	56
	55	55	55	54	55	55	55	55	54	55
	54	54	54	52	54	54	54	54	52	54
	52	52	52	48	52	52	52	52	48	52
	48	48	48	34	48	48	48	48	34	48
34	34	34	31	34	34	34	34	31	34	
31	31	31	30	31	31	31	31	30	31	
30	30	30	25	30	30	30	30	25	30	
25	25	25				25			25	

주: 각 숫자는 HS CODE를 말함.
 자료: WITS와 UN COMTRADE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아프리카의 한·중 RCA-MS 매트릭스

	남아공	나이 지리아	가나	앙골라	케냐	탄자 니아	코트디 브와르	에티 오피아	카메룬	세네갈	베냉	모잠 비크	토고	콩고 DRC
A	8704	8703	8704	8703	8703	8703	8704	89	8703	8703	8703	8703	8703	8703
	8703	89	8703	88	27	27	8703	88	88	88	88	88	89	8702
	87	88	88				88						88	88
	27	27	27				87							39
														27
B	8702	8704	8702	8704	8704	8704	8702	8704	8704	8704	8704	8704	8704	8704
	8701	8702	8701	8702	8702	8702	8701	8703	8702	8702	8702	8702	8702	8701
	8450	8701	8450	8701	8701	8701	8450	8702	8701	8701	8701	8701	8701	8450
	8418	8450	8418	8450	8450	8450	8418	8701	8450	8450	8450	8450	8450	8418
	90	8418	90	8418	8418	8418	90	8450	8418	8418	8418	8418	8418	90
	89	90	89	90	90	90	89	8418	90	90	90	90	90	89
	88	87	87	89	89	89	74	90	89	89	87	89	87	87
	74	74	74	87	88	88	72	87	87	87	74	87	74	74
	72	72	72	74	87	87	60	74	74	74	72	74	72	72
	60	60	60	72	74	74	40	72	72	72	60	72	60	60
	40	40	40	60	72	72	38	60	60	60	40	60	40	40
	39	39	39	40	60	60	29	40	40	40	39	40	39	39
	38	38	38	39	40	40		39	39	39	38	39	38	38
	29	29	29	38	39	39		38	38	38	29	38	29	29
				29	38	38		29	29	29	27	29	27	27
				27	29	29		27	27	27	27	27	27	27
C		71	71	8528		71	30	71	76	8528	25	71	71	
		25				25	25	30	71			30	31	
													25	
D	8705	8705	8705	8705	8705	8705	8705	8705	8705	8705	8705	8705	8705	8705
	8528	8528	8528	8525	8528	8528	8528	8528	8528	8525	8528	8528	8528	8528
	8525	8525	8525	8517	8525	8525	8525	8525	8525	8517	8525	8525	8525	8525
	8517	8517	8517	8415	8517	8517	8517	8517	8517	8415	8517	8517	8517	8517
	8415	8415	8415	94	8415	8415	8415	8415	8415	94	8415	8415	8415	8415
	94	94	94	85	94	94	94	94	94	85	94	94	94	94
	85	85	85	84	85	85	85	85	85	84	85	85	85	85
	84	84	84	82	84	84	84	84	84	82	84	84	84	84
	82	82	82	76	82	82	82	82	82	76	82	82	82	82
	76	76	76	73	76	76	76	76	76	73	76	76	76	76
	73	73	73	71	73	73	73	73	73	64	71	73	73	73
	71	64	64	64	71	64	71	64	62	64	71	64	64	71
	64	62	62	62	64	62	64	62	62	59	62	62	62	64
	62	59	59	59	62	59	62	59	58	59	62	59	59	62
	59	58	58	58	59	58	59	58	56	58	59	58	58	59
	58	56	56	56	58	56	58	56	55	56	58	56	56	58
	56	55	55	55	56	55	56	55	54	55	56	55	55	56
	55	54	54	54	55	54	55	54	52	54	55	54	54	55
	54	52	52	52	54	52	54	52	48	52	54	52	52	54
	52	48	48	48	52	48	52	48	34	48	52	48	48	52
48	34	34	34	48	34	48	34	31	34	48	34	34	48	
34	31	31	31	34	31	34	31	30	31	34	31	30	34	
31	30	30	30	31	30	31	25	25	30	31	25		31	
30		25	25	30					25	30			30	
25				25									25	

주: 각 숫자는 HS CODE를 말함.
 자료: WITS와 UN COMTRADE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한·중 공종별 수주액 비교

(단위: 억 달러)

	년도	건축	전력설비	교통인프라	석유화학	전자통신	산업설비	상하수도	광산개발	환경보호	기타	설계자문
중국	2012	320.9	212.7	356.2	171.7	176.5	94.0	73.9	36.6	2.8	7.0	-
	2010	280.9	280.0	290.8	160.5	112.6	77.0	53.6	13.2	2.4	73.1	-
	2009	248.7	232.0	298.2	172.1	92.6	91.3	32.4	14.6	1.9	78.0	-
	2008	325.2	167.8	156.8	104.6	73.2	73.2	41.8	20.9	-	73.2	8.88
	2007	222.8	156.0	129.6	41.9	57.4	70.6	24.1	23.3	0.8	48.9	10.26
한국	2012	148.1	187.3	71.2	150.1	0.7	45.4	14.1	0.0	0.0	0.0	8.2
	2010	65.4	338.8	36.7	184.6	4.6	57.2	15.1	0.0	1.2	0.0	12.2
	2009	57.9	54.8	38.5	284.0	0.2	28.7	5.0	0.0	15.7	0.0	6.6
	2008	79.4	98.6	67.8	161.6	0.2	37.9	18.0	0.0	3.4	0.0	9.5
	2007	66.1	92.3	33.7	133.3	0.4	38.7	28.6	0.0	1.0	0.0	3.8
한국/중국	2012	46%	88%	20%	87%	0.5%	48%	19%	0%	0%	0%	-
	2010	23%	121%	13%	115%	4%	74%	28%	0%	52%	0%	-
	2009	23%	24%	13%	165%	0%	31%	16%	0%	821%	0%	-
	2008	24%	59%	43%	155%	0%	52%	43%	0%	-	0%	107%
	2007	30%	59%	26%	318%	1%	55%	119%	0%	124%	0%	37%

주: 1) 중국은 2009년부터 '설계자문' 항목을 집계하지 않고 있음.

2) 중국의 2011년 공종별 데이터는 입수하지 못함.

자료: 한국해외건설수주통계, 중국대외도급공정발전보고 각 연도.